



## 화장지,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할까?

화장실에 화장지를 걸 때 그 방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. 안쪽 아니면 바깥쪽, 이 단순한 방향 선택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? 그리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거는 것이 합리적일까? 그런데 화장지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면? 물론 너무 심각하게 보려 들지는 말자. 당연히 이 하나의 콘텐츠로 개인의 입체적인 성격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. 과학적 근거보다는 행동학적 심리에 따른 것이므로 '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' 정도로 유연하게 생각하자.

그의 연구에 참여한 75%의 사람들이 화장지를 뜯는 부위가 바깥으로 향하게 거는 것(2번 방식)을 선호했다. 칼 박사에 따르면 2번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1번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보다 정리정돈을 잘하며 더 지배적인 성향을 지녔다. 또,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.

칼 박사에 따르면 1번 방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느긋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을 보이며 탄탄한 기초 위에 구축된 관계를 우선시한다.



일단 손에 박테리아가 묻으면 제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. 비누로 대충 몇 초간 손을 씻는 것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. 손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거품을 내어 20초 이상 문질러야 한다. 이는 보통 속도로 '생일 축하 노래'를 2번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다. 이렇게 충분히 씻어내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. 이런 손 씻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세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장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.

물론 어떻게 걸든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. 하지만 2번처럼 거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은 분명하다.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위생과 청결을 위해 2번 방식으로 걸기 시작했다면, 더 이상 화장지 거는 방식을 통한 성격 파악 같은 연구는 필요 없을 것이다.

사진=shutterstock



① 절취선 안쪽으로

② 절취선 바깥쪽으로

### ■ ①번=느긋하고 신뢰성 높아 ②번=완벽주의 성취력 높아

미국의 유명 연예인 관계 컨설턴트이자 관계 치료사인 길다 칼 박사는 화장지 거는 방향에 따른 성격을 연구했다. 그는 화장지 뜯을 흘더에 거치하는 방식은 특정 행동과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### ■ 방향이 중요한 것은 위생 과학 때문

사실 ①, ②번 방식에 따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생에 있다. 화장지는 바깥으로 가게 (2번처럼) 걸어야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.

사람들이 화장지에 손을 뻗을 때 2번 방향에서는 사용할 부분만 딱 만져서 뺄 수 있다. 반면에 안쪽에 1번처럼 걸면 손가락이 벽에 닿기도 해서 박테리아가 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. 이렇게 되면 다음 사용자가 기존 박테리아에 더해 더 많은 세균이 묻어 있는 휴지를 만지게 된다. 잠재적인 오염 연쇄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. 너무 과한 반응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화장실 화장지로 인해 식중독균이 옮겨가는 사례들도 있다.

### ■ 세균 접촉 최소화 위해 필요한 일

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의 대부분은 식중독의 흔한 원인인 사람의 대변에서 나온 대장균이다. 대장균은 표면에서 손가락으로 쉽게 옮겨져 손으로 먹는 모든 음식으로 전염된다. 이 때문에 화장지를 걸어 두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.

# 차리는 음식마다 眞心 진심을 담습니다 쿠니 사시미 횃집으로 오세요!

To go  
환영



활어 사시미 콤보 (광어+도다리)



모듬 사시미 콤보 (광어+연어+참치+방어+문어)



이벤트 특가  
전복 / 명게 / 해삼 \$50



우니 사시미 \$40



Tuna(Toro) Special \$40

714.752.6658

www.kunisashimi.com

7550 Orangethorpe Ave., E100

Buena Park, CA 90621



**KUNI**  
쿠니 사시미 횃집

단체 예약 환영

Opening Hours

Mon-Sat: 3PM-12AM

Sun: 3PM - 10:30PM